

내러티브 저널

2026년 4월 21일

오늘은 2학년 무용 실기평가를 참관하였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즉흥 음악에 맞춰 말 대신 몸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평가를 진행하였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각자 선택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표현력이 전반적으로 뛰어났고, 연기와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단순한 동작을 넘어서 표정과 감정 표현이 매우 풍부하게 드러났다. 무용이지만 동시에 연기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몸의 움직임 속에서도 이야기와 인물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모습이였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몰입도와 표현력이 좋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주제를 해석해 무대 위에 드러내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무용과 연기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순간들을 보며 예술 표현의 다양성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